막을 수 없다

ПЭК 8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
ПОС.ВО США

3 - AUG - 9
Copy ____ 1960

화살

1959년 9월 상반호(109)

하 능택 그림

수확은 많고 일은 헐하다

조 명식 그림

탐 조 등

우리 농촌은 지난 기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계속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으로 날로 풍유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극히 부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데서 농촌 경리 발전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을 묵과할 수 없다.

평균주의

작년 결산 분배 때였다. 강동군 한왕 농업 협동 조합 전 관리 위원장 리 상훈이 자기가 번 로력일을 계산해 보니 도무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자기 가족들도 얼마 일을 안 했다.

(금년엔 분배를 얼마 못타겠는걸, 무슨 수가 없나? 그렇지, 분배를 로력 점수에 의해 할 것이 아니라 가족 수에 의해서 하자구 하잔 말이야, 관리 일'군들도 다 나 같으니 반대할 택이 있나)

관리 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관리 위원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제기하였다.

《벌써 알곡들은 대부분 가족 수에 따라 전불했으니 그거면 다들 식량이 자랄텐데, 조합이란 건 누구나 다 잘 살자는거니만큼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겐 많이 주었으니까 다 공평하게 살게 됐은즉 이제 다시 로력점수를따지며 재분배하노라고 할 것 없이 이미 분배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소?》하고.

그러자 조합원들 앞에 앉히웠던 관리 위원들이 먼저 손을 들었다. 그럴듯하게 주어대는 바람에 조합원들도 따라 손을 들었다. 이리하여 이 조합에서는 로력 점수에 의해서 분배되지 않고 가족 수에 의해 분배가 되였다. 결과 금년부터 조합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였다.

《그까짓 땀 흘리면서 일해서 뭘 해, 가족 수에 의해서 분배 받을텐데…》

《나야 가족이 적은데 일 많이 한다구 많이 분배 받겠나.》

그래서 그들은 일하려도 해가 낮이 돼서야 어슬렁어슬렁 나오고 그래서 로력의 가동률은 4월까지 68%다.

이렇게 분배에서의 평균주의—그것은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었다!

황해남도 일부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로력일에의한분배를 하지 않고 아직도 평균 주의적으로 분배하는 경향이 있다.

조 명식 그림

출석부

문 덕군 마산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보통 조합들과 달리 로력 수첩 대신에 쓰는 출석부 비슷한 것이 있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그날 일을 나오면 출석부를 긋듯이 막대기를 하나씩 긋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나온 날자로 로력을 평가하고 로력 점수는 매기지 않는다. 때문에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일찍 나오건 대낮에 나오건 막대기 하나다. 같은 평가를 받는다. 점수를 매기지 않으니 작업 정량이 없고 도급제도 없다. 이러다가는 일을 많이 한 평가를 받지 못하겠기에 반년 동안이나 참아오던 조합원들은 작업 반장에게 로력일 평가를 해 달라고 하면 10 작업 반장은《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데 밥만 먹으면 되지 로력일은 해서 뭘 하는가.》하며 로력일 평가를 해 주지 않는다.

성급한 이 조합 일'군들! 아무리 조급해도 공산주의에는 사회주의를 거쳐야 갈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시라. 그리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지연시키며 나아가서 공산주의 건설도 지연시킨다는 것을.

이 조합에서 이런 평균주의적 로력 평가는 조합원들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 주었다.

《일을 많이 해도 막대기 하나고 적게 해도 막대기 하나다!》

조합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일한다면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은 제고될 수 없으며 공산주의도 건설할 수 없다.

한점 짜리와 한점 반 짜리

성천군 향풍리 향풍 농업 협동 조합에서 두 조합원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작업반의 그…저… 내가 이름을 그만 잊어 놔서… 1점 5석 받는다는 동무 말이야.》

《아하— 김 동무 말이요?》하고 상대 방은 그 사람을 알아 마친다.

《그래 그래, 사람마다 점수를 매겨 놔서 몇점 받는 사람이라는 건 훤한데 이름은 점점 잊어져 간다니까.》

롱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저기 아무개가 온다》고 하지 않고《저기 몇작업반 1점짜리 온다.》혹은《동무는 0.8짜리니까 말하자면 보통 사람의 8부나 같아, 그래 이제부턴 자네를 간단히 "8부„ 라고 부르겠네.》

이렇게 사람마다 점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나야 암만 일 많이 해도 한점 짜린걸.》

《나야 슬근슬근 일해도 한점반은 정해 놓은 건데.》

이래 저래 사람들은 생산 의욕이 나지 않는다.

로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안하는 것은 전달'군을 양성하며 이것은 조합원들의 분배 몫을 줄게 할 수 있는 원인으로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가?

관리위원장의 독백

저는 룡천군 화로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구요? 첫째로 말해야 할 것은 우리 조합에선 분배를 하지 않고 공동 식당에서 모두 식사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더 잘 먹고 누구는 잘 못먹고 하는 폐단이 없어졌지요. 로력 점수를 많이 번 사람들은 "분배를 해 달라, 로력 점수에 의해서! 분배를 해 주구, 공동 식당을 운영할려면 정 바쁜 농번기에나 자기 식구가 먹는 수량만큼 들여 놓고 먹자„하고 제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쳤지요. 단마디로. 그런 사람은 자기만 잘 살겠다는 그…저…개인 리기주의자거든요, 누구나 다 잘 살자는 사회에서 자기만 분배를 많이 받아 잘 살겠다! 이게 개인 리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분배를 하지 않고 공동 식당에다 넘겨주고 나머지는 공동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홥니다. 금년부터 어쩨선지 조합원들이 일을 잘안하는 겁니다. 그전에 일을 열성껏 하던 사람도 열성을 내지 않으니 참 조화가 아니예요?

리 윤봉

추수 준비는 되였는가?

최 영근 그림

풍 작 —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소
달리 준비하는것이 어떻겠소

심중한 대책

계획 변동에 따라서 14브리가다가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지게 되면 날, 책임 운전공 림 춘식 동무는 부기사장과 동력부장에게 물었다.

《기중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기중기? 기중기야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대로 세워 두겠소. 어느 때라구! 좀 기다리시요》 부기사장도 동력부장도 이렇게 대답했다.

그후 일주일이 지났다.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든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세 명의 운전공은 또 브리가다장에게로 달려 갔다.

《브리가다장 동무, 기중기가 서 있는지 벌써 일주일이 지납니다》

《글쎄 나도 상부에다 여러번 제의했는데 또 한번 제의합시다.》

이 바쁜 통에 기중기가 열흘, 보름씩 한 자리에 머물러 서 있고 보니 운전공이나, 브리가다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죄는 것 같다.

그래서 브리가다장도, 책임 운전공도 사흘이 멀다고 남구 트레스트로 달려 갔다. 부기사장 동무도, 동력부장 동무도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묻기도 전에

《아 기중기 말이요? 좀 기다리구려, 이제 대책을 세웁시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동안에 운전공들은 기중기 아래에서 기중기 경비를 서거나 토공 일을 협조해야 했다.

《부기사장 동지, 기중기 운전공들의 단련을 못 받겠으니 그 동무들이라도 딴데로 떼돌려 주시지요…》 브리가다장이 제의하며는

《글쎄 좀 기다려 보시오, 이제 또 곧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 아니오》

부기사장 동무나 동력부장 동무가 대책을 세우는 동안에 꼽박 두 달이 지나 갔다.

8월도 열흘이 넘은 어느날, 브리가다장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끔한 대답을 들고 갈 작정으로 부기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기중기를…》

《아 또 기중기요? 글쎄 그렇게 다구칠려면 애당초부터 동무네가 물동을 그 작업장으로 계속 받아서 기중기를 놀리지 말아야 할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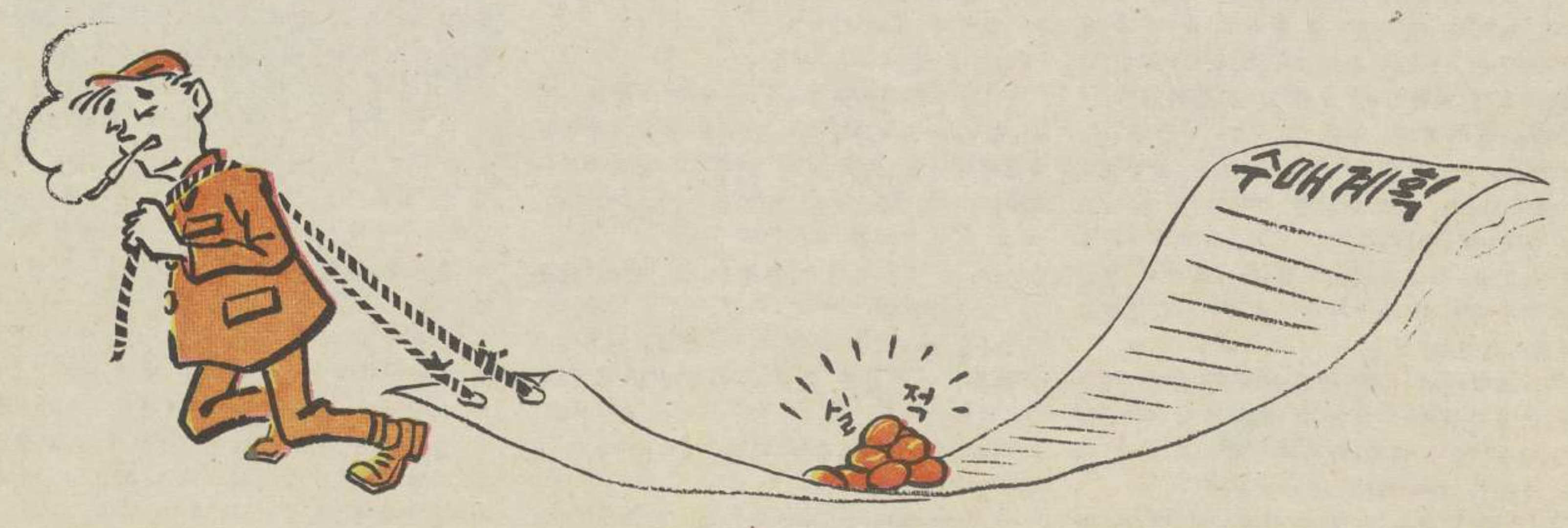
《물동을 주고 안주는거야 부기사장 동지나 지도부에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요 원…》

《그러니 낸들 어떻건단 말이요…》

기중기를 한 작업장에서 시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기는데는 5,6일이면 충분할터인데—대책을 세우는 동안에 꼬박 두달이 지나 갔다. 그러구 보니 남구 트레스트 부기사장 동지의 설비 리용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심중하신 모양인바 언제쯤이면 이 《훌륭》한 대책이 세워져서 기중기가 움직이게 될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김 상애

석달만에 돌아 오는 수매원



최 영근 그림

일부 수매 일'군들은 자기의 수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깜빠니야식 써클 련습 결과

함남도 정평 요업 공장
리 수길 그림

《높은 설비 리용률》

참새—아니 어떻게 여기에 자리 잡고 있소?
참새—2개월 씩이나 놀리고 있는데 우리라도 리용해야지…

홍 종호 그림

위생 사업에 대한 《관심》

리 춘수 그림

모기 잡이를 전인민적 운동으로!

원 광수 그림

망신 하기 좋겠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부부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여보, 공장에서 장판지를 좀 살 수 없어요?》

《왜 그러우?》

《이걸 좀 보시라요, 건물 관리부에서 장판지라구 내주는데 이걸루야 어떻게 장판을 놓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

《이것 봐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넌적 넌적 찢어질 지경이예요. 기름두 잘 덜지 않았구요. 이걸루 장판을 하면 아담하고 깨끗한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왕 제지 공장엘 다니시구 또 직접 장판지를 만드시니까 집에서 쓸것좀 사 오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돼요》

《불합격품이라두 말이죠, 불합격품이라두 이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합격품인걸 뭐…》

《그야 물론 합격품을 만드시겠지만 간혹 불합격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합격품이 이런데 불합격품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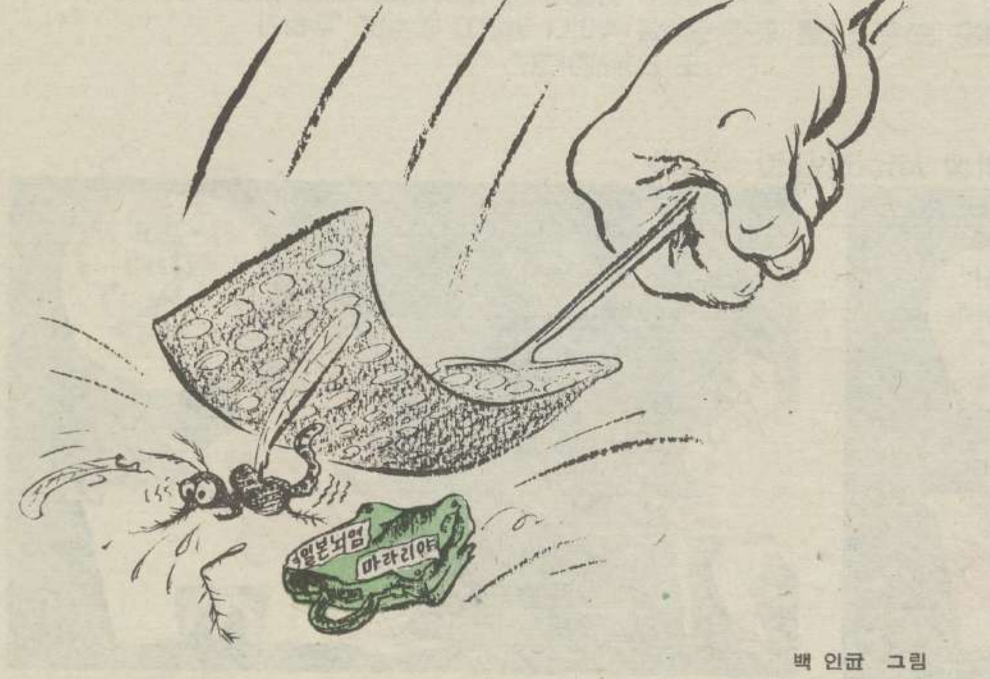
《예? 그럼 이 장판지가?》

《예, 우리 공장 제품이요》

《예에—그래요… 다른 곳에 가셔서는 애혀 우리 공장 제품이란 말씀은 마세요, 망신하기 좋겠어요》

이 남편은 평양시 중구역 제지 공장 일'군이다.

김 창선



백 인규 그림

잠자는 엄마 대신

리 춘수 그림

시체 흥정

오 흥택

《오늘은 몇개요》

병원 회계과장이 들어 닥치며 하는 말이다

가죽 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손'가락을 두개 펴 보였다.

《겨우 고거야, 오늘은 수지가 안 맞는데》

《아니 다섯은 문제 없다든데 왜 이 모양이요》

가죽 잠바가 불이 부어 뇌까리는 말이다.

《허허… 낸들 어떻허우. 사람의 목숨이란 천하면서두 간단히 처리가 안되는 거라우》

금테 안경을 쓴 회계과장의 대답이다.

《자, 나갑시다》

두 사람은 이윽고 종로 뒤'골목의 색주가에서 마주 앉았다.

《사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되오》

《팔곳은 문제 없소이다. 래일은 좀 더 흥정이 붙을거외다.》

《뭐 회계과장 말이야 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가죽 잠바가 시뜩해서 대답한다.

《아까 입원실을 한바퀴 돌았는데 다섯은 문제 없을 거요. 미군 자동차에 치여 골깨진 녀인, 몇달씩 굶다가 각혈까지 한 폐결핵 환자, 10년채 간 지스트마로 헐떡거린다는 령감쟁이, 길'가에서 놀다가 미군 총에 맞은 소년, 또 뭐더라, 경찰에서 두 달간이나 고문을 받고 나온 학생…》

금테 안경이 흥이 나서 내려 벨는 말이다.

《원 어제두 한참 내려 곱더니 겨우 둘이 나왔는데…》

가죽 잠바는 아직두 못 미더워 한다.

《난 이래두 병원 회계과장을 10년 이상 했수. 서당개 3년에 풍월짓는다구 해'내기 의사 보다야 눈치 빠르죠》

금테 안경은 제법 뽐내기까지 했다.

《자 이건 죽는 소리만 하니 술맛이 없소. 한잔 드소》

《허허 그 소리가 돈 나오는 소린데 술맛이 없다니, 난 그 소릴 돈으로 안다우》

× ×

이것은 서울 한 복판의 적십자 표식을 한 병원의 회계과장과 종로 경찰서 위생 계장이 하는 시체 매매 흥정이다.

그들의 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의대 학생들이 해부 실험을 하느라구 시체를 산다는 말을 병원 회계과장이 들었다.

매사가 그러하듯이 이 시체 장사도 경찰을 끼는 것이 후'일 처리가 무사한 것이였다. 벌써 그들은 이 술'자리에서 여러번 만났고 10여개의 시체를 팔아 먹었다.

× ×

다음날 아침 금테 안경이 해정까지하고 《흥겨운 기분》으로 병원에 출근하였을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왜 못 내가게 하는 거요》

미군 총에 맞아 간밤에 죽은 소년의 어머니인듯 싶은 중년 녀성이 드려 대는 말이다.

《치료비 5천환이 떨어졌는데 시체만 찾아 가겠단 말이우? 당장 돈을 내시우 병원 사람은 밥을 안먹구 일하는줄 아우》

《양키 놈들이 생 사람을 잡아 놓구 돈까지 내라는거유》

《양키 놈들이라니 그게 무슨 불손한 말이요, 그 행패를 병원에서 하문 어쩌란 거요. 에, 돈을 내구 시체를 찾아가시우》

녀인은 쌓이고 쌓인 울분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생 사람을 잡아 놓고 죽은 후까지 이렇게 팔세를 하는 세상이 어데 있느냐. 아이구 이놈이 세상이 뒤집혀라! 시체까지 차압하는 이놈의 세상이 망해라!》

병원 사무실에서는 곡성이 뒤섞인 녀두리가 터지고 소란이 일어났다.

금테 안경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니 종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이윽하여 가죽 잠바가 호기 있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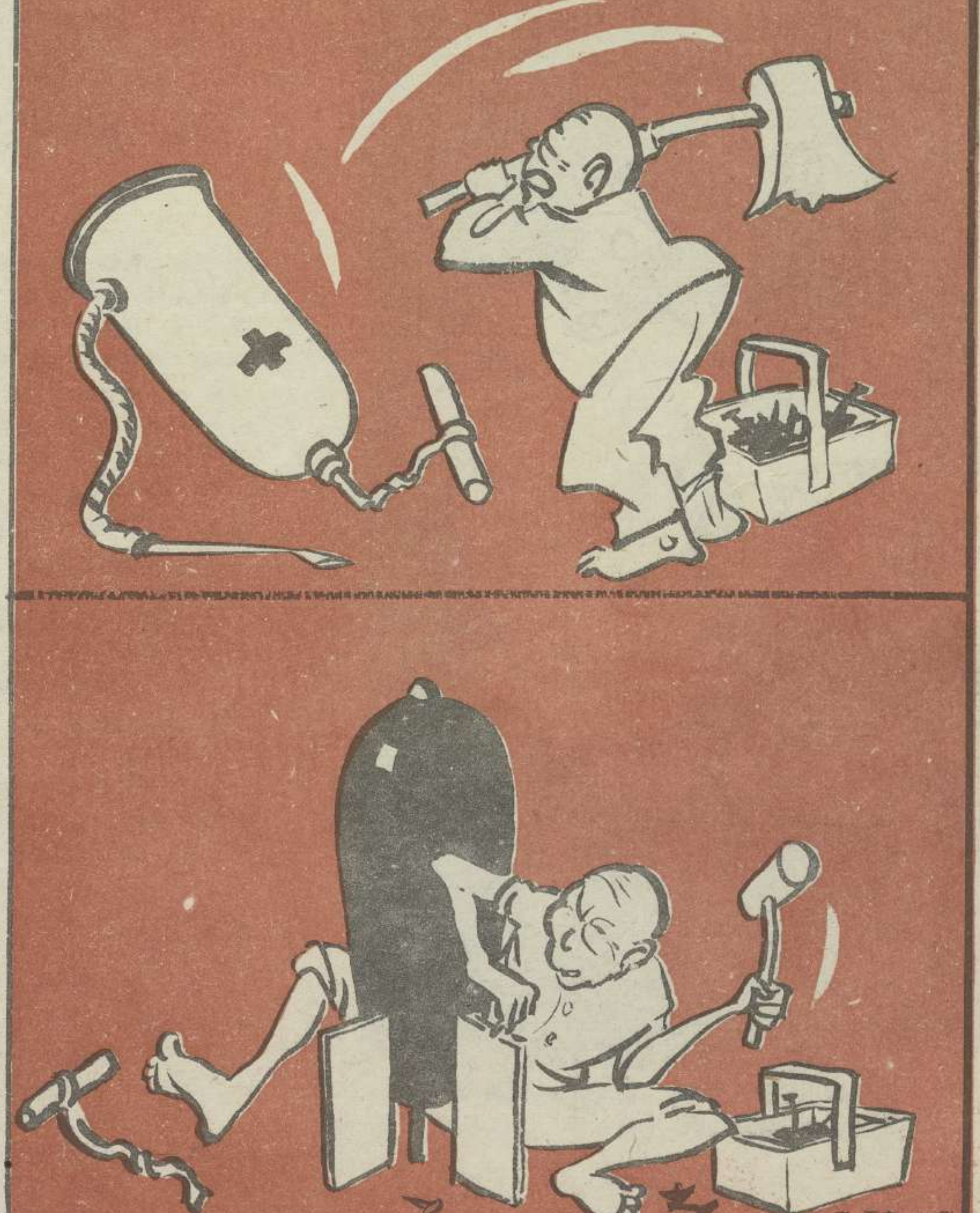
《이년, 세상이 뒤집히라구? 그런 불온 사상을 가지니까 아들이 죽는거야 엉? 백번 죽어 싼거야, 본서로 가자!》

녀인이 종로 경찰서에서 1주일간이나 고문을 당하고 나왔을 때 병원에는 시체가 없었다.

시체의 주인이 사상 불온자로 경찰에 류치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시체를 화장해 버렸다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땅을 치며 원한을 토로했으나 이 썩어가는 사회에서 어머니는 어데 가 하소연 할 곳조차도 없었다.

리 승만의 위생 개조



홍 종호 그림

최 영근 그림

—무엇 때문에 남조선에 갈려고 하오?
—전염병 연구 때문에, 그 곳에는 모든 전염병이 다 있으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된 남조선의 치료 기관

철수

최근 남조선에서는 또 한가지 야릇한 일이 있었다.

40명의 의사가 새로《면허》를 얻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종래 있던 개업의들이 노발대발하여 리 승만 괴뢰 정부에 대하여 40명에게 준《면허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리유는 첫째로 의사의 수가 늘면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돈벌이가 못해진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리 승만 괴뢰 정부 관리놈들이 엉터리들에게서 막대한 뢰물을 먹고 자격도 없는 엉터리들에게 의사《면허장》을 팔아 먹었다는 것이다.

승냥이의 법칙이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항용 볼 수 있는 사전은 의학 기술이 이 곳에서는 인민들의 병을 고치거나 보건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폭로해 준다.

돈벌이 하는 의사, 돈벌이 수단으로써의 의술, 이것이 입에 풀칠조차 못하는 절대 다수의 남조선 근로자들과 무슨 인연이 있겠는가.

《병은 의사가 고치는게 아니라 돈이 고친다》

남조선 항간에는 이런 말이 류행되고 있다.

의술이 남조선에서는 얼마나 더러운 모리의 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자본가나 지주들의 독점물로 되고 있는가는 다음의 몇가지 실례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남조선에서 가난과 질병은 몽둥이와 그림자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남조선 천지를 뒤덮고 있는 수백만 각종 질병 환자들로 말하면 모두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머니로부터 털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리 승만 괴뢰 도당은 로동자들이 집중되여 있는 공장 광산 지구나 농촌들에는 의료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혹 이런 곳에 병원을 차려 놓은 의사가 있으면 쥐구멍에서 범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여 조소하며 약품 배급을 거절한다. 그래도 이쯤은 약과다. 십중팔구 이 사람들은《빨갱이 사상》의 소유자로 지목되여 감시와 박해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반동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 안되는 의사마저 절대 다수는 서울 부산 등 몇 개 도시에 그도 자본가나 지주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몰켜 있을 따름이다.

의사의 자격이 지나 주식 회사의 주권처럼 매매 또는 대부되고 소위 대리 의사를 내세워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일들이 제도처럼 되고 있다고 하면 독자들은 더욱 놀랄 것이다.

리 승만 괴뢰 정부《보건 사회부 장관》이며《대한 적십자사 사장》인 손 창환이란 자의 경우가 이에 대해 잘 말해 준다. 이 자는 낮에는 괴뢰 정부에 나가 앉았고 밤에는 기생들과 료리집에서 지낸다. 그러나 괴이하게도 서울 한복판에《의학 박사 손 창환 병원》이란 대문짝만 한 간판이 붙은 병원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가장 돈벌이 잘하는 병원으로써 소문이 높다. 사실을 말하면 손 창환은 자기의 의사 자격증을 토지 소작 주듯 비싼 세를 받고 빌려 주었으며 이를 빌린 모리배는 자격도 없는 자들을《대리 의사》로 고용하여 손 창환의《판직》과《학직》을 팔아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수다하다. 사람은 서울에 살고 그의 병원 간판은 부산에 붙어 있기도 하고 대구에 붙어 있기도 하다. 의사 자격증을 매매했거나 대리 의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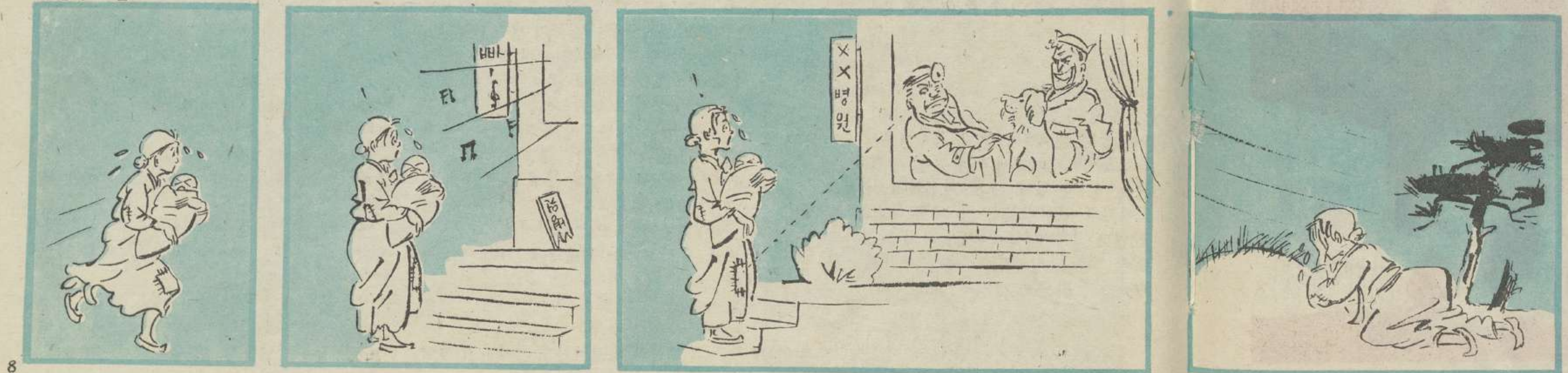
이런 곳에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서울의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대리 의사에게 복부 수술을 받고 얼마 못가서 사망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죽인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입원 수술비, 수만환을 내지 않았다 하여 죽은지 5일이 지나도록 시체의 인도까지 거부하였다. 죽은 것도 불상한데 시체마저 병원 창고에서 썩어서야 되겠느냐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푼전을 모아 시체를 찾아다가 화장했다. 화장장에는 유골만 남은 것이 아니라 수술 가위까지 남았다.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환장한 병원 모리배들이 가위를 속에 넣은채 꿰맸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도적놈의 손에 쥐여진 몽둥이가 사람을 해치기 마련인 것처럼 리 승만 매국 도당의 손에 쥐여진 의료 기관은 인민의 피를 빠는 수단으로만 될 따름이다.

허 능택 그림

허 능택 그림



리 승만—보시다 싶이 한국 백성은 아주 건강하여 피를 팔 형편입니다

최 영근 그림

신기록 속출

최 철수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는 〈속속 신기록〉이라는 표제 밑에 〈사천년래의 민생고〉 〈8백년래의 물가〉 〈80년래의 흉작〉이라는 표현으로써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의 통치 밑에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류례 없이 참담한 생활의 일단을 폭로한바 있다.

미제 강점 하에서 8. 15 해방 14주년을 맞는 남조선은 세기적 빈궁과 비극과 몽매와 공포가 깃든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되고 있다

지난 14년간 남조선은 과연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여기에 몇가지 수'자를 통해 미제가 자랑하는 〈자유 세계〉—남조선의 모습을 살펴 보기로 하자.

△ 물가는 1945 년 6 월에 비하여 이미 1958 년 12 월 현재로 3만 9,700여배 폭등하였다.

△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짜내는 세금은 1945년에 비하여 1959년에 실로 9만 5,968배로 증대되였다.

△ 국문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의 수는 1947년에는 392만명이였으나 1958년 12월 현재 737만 여명으로 늘어 갔다.

△ 실업자의 수는 1946년 11월의 105만명으로부터 1959년 3월에는 실업자 반실업자가 660만명으로 격증되였다.

△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1958년에 체포 투옥한 남조선 인민의 수는 무려 24만 920명으로 1945년 1년 동안에 일제와 미제가 남조선에서 체포 투옥한 수 1만 2,282명의 약 20배에 달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략탈의 류례 없는 잔인성과 가혹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이 수'자들은 력사상〈신기록〉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신기록은 이것뿐이 아니다.

《망국병》(亡國病)을 비롯한 온갖 질병이 많고, 자살자가 많고, 가짜가 많고, 절량 농민이 많고, 륜락한 녀성이 많고, 군대와 경찰이 많은 것도 〈신기록〉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두 〈외군 진주의 비극적 산물〉이라고 〈동아 일보〉는 솔직히 고백하였다.

〈신기록〉은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락엽처럼 오그라 드는 데서도 볼 수있다.

8. 15 해방 후 14년간 공장수는 4,000 여개가 줄었으며 공업 생산은 약 절반으로 격감되였다. 경지 면적은 21만 정보, 파종면적은 60만 정보, 농업 생산고는 30%가 줄어 들었다. 사람들의 위장도 줄어 들고 허리끈도 줄어 들고 지어 인민들의 평균 수명조차 37세에서 33세로 줄어 들었다.

고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만 해도 터지기 마련이며 단풍잎처럼 오그라들어도 부서지기 마련이다. 한정 없이 부풀어 오른 고무 풍선 우에 올라 앉은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매국 도당의 운명이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구급처치 (괴뢰군)

진 단

의사—우선 여기부터 맥을 봅시다.

리 승만의 보건 대책

백 인규 그림

약은 가짜, 병은 진짜

백 인규 그림

당원 배가 운동

류 계린

1958년 8월 어느 날 경남 삼천포시에 있는 《자유당 시당부》에 자유당 조직 위원회로부터 프린트로 인쇄한 지시문이 내려왔다.

—앞으로 다가올 정,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당원 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시킬 것, 특히 지방원 미포섭 유력자 포섭에 주력하되 이미 조직된 전국 7,418개의 민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직접 매개인을 방문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입당을 권고할 것.

이 지시문은 시당 위원장의 싸인과 함께 경찰서에 이첩되였다. 경찰 만능 국가에서는 《당원 배가 운동》도 경찰이 집행하게 마련이다.

며칠이 지나 시내 서동에 있는 박 민수네 집에 순경 한 사람이 찾아 왔다.

—집에 누가 없소?

접어드는 말이 처음부터 시비쪼다.

—거 누구요?

마고자 단추를 채우면서 밖으로 나온 박 민수는 순경을 보고 눈알이 휘둥그래졌다.

박 민수는 논마지기나 조이 있고 고을에서는 《유지》로 통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어찌다가 《민주당》에 들게 되여 이웃 출입에도 감시를 받는 처지여서 순경을 보면 심사가 편치 않았다.

—댁에서는 어제 왜 시위에 안나왔소?

—시위라니요?

—재일 교포 북송 반대 시위 말이요.

—어제 나는 볼 일이 있어 촌에 있었는데…

—그럼 아주머니라도 내보내야 할게 아니요?

—집의 사람도 친정에 갔다 어제 밤에야 왔어요.

—왜 하필 시위 있는 날 집을 떠난단 말이요. 아무래도 당국의 시책에 불만이 있는 것 같소… 그러구 옳지, 이 집의 사돈벌 되는 사람이 이북에 있지. 암만해두 알아 보아야겠소. 본서로 갑시다.

—아니, 나리… 그걸 말이라고 하슈. 일제 때 부터 가 있는 사람을…

—어쨌던 갑시다. 서에 가면 알게 아니요.

—여보슈, 내게 무슨 용건이 있는 모양인데 생트집 말구 그 용건이나 말씀하슈

그러자 순경의 태도가 누구러지더니 히죽히죽 웃으면서 양복 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 《박 주사》앞에 내밀었다.

—그럼 여기 도장이나 찍어요.

—그건 또 뭐요?

—민주당 탈당 원서요.

—오라, 알구 보니 댁이 자유당 일로 오셨소 그려.

—어서 도장이나 찍어요.

—안찍으면 어쩔테요?

《박 주사》는 그래도 믿는데가 있는지라 슬며시 위풍을 떨어 봤다.

—아니 지금 세상이 누구 세상인데 안찍구 배길 것 같소. 박주사도 잘 아시면서 그러시는구려. 자 보슈, 박 주사와 아래웃채에 사는 최 돌씨, 배 춘부씨, 임 진명씨, 리 선 우씨두 모두 탈당하겠다구 성명서에 련명까지 하지 않았소?!

순경은 주머니에서 련명으로 된 《탈당 성명서》한장을 꺼내더니 박 민수의 턱 밑에 갖다 댄다.

—리 선우씨가?

—허허 박 주사는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군, 그럴 수 있지, 어제 탈당했으니까…

—여보슈 그만 둬요, 쯧쯧

《박 주사》는 아니꼽다는 듯이 혀를 찼다.

—아니 왜 또 이러슈?

—왜라니요, 그 사람이야 달포 전에 장사차로 부산 갔다가 미군 짚차에 치여서 보름전에 거기서 죽은 사람인데…

—앗차, 내 이름을 잘못 쓴 모양이군, 옳지 옳아 이 분은 리 선우씨가 아니라 리 명우씨야

—그 사람은 며칠 전에 대구로 이사 갔어요.

—그럼 한…

—한가 성 가진 사람은 원래 이 동리에 있지 부텀 않아요.

—체 그까지껏 아무러면 어때요. 유령이면 죽었던 민주당에 없는 건 매일반인데… 어서 도장이나 찍어요

순경은 《박 주사》 코밑에 탈당 원서를 바싹 들이 밀면서 올배미 같은 눈을 쏘아 부쳤다.

결국 《박 주사》는 도장을 찍고야 말았다.

순경이 문 밖을 향해 소리를 치니 문 앞에서 젊은이 하나가 들어 왔다.

—이것을 곧 민주당에 보내도록 빨리 본서로 가져가!

순경은 박 민수에게서 받은 탈당 원서를 젊은이에게 들려 보낸 후 주머니에서 또 한장의 종이를 꺼냈다.

—박 주사, 이왕 도장을 찍으신 김에 여기두 찍어 보시지요.

—건 또 뭐요?

—전당 원서야요.

—자유당에 들란 말이군요

—허허 민주당 탈당하시라는 건 자유당 드시란 말이예요. 자유당에만 들면 《박 주사》같은 분은 장'자 하나는 틀림 없지요

—아니 장이라니…

—그러게 좋다는게 아니야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거야요.

《박 주사》는 도장을 찍었다.

—댁의 아드님이 고등 학교 다니지요? 여기 이름을 쓰고 대리 도장을 찍으시지요.

—우리 아들 녀석은 아직 미성년인데…

—앞으로 성년이 될게 아니예요. 관계 없어요.

순경은 아들의 대리 도장까지 받아 갔다.

며칠 후 《박주사 댁》에는 경찰서에서 완장 하나가 전달되였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주먹깨나 쓰는 《자유당원》들이 팔에 두르고 나서서 한 몫 보는 말하자면 경찰의 사설 테로단들이 사용하는 완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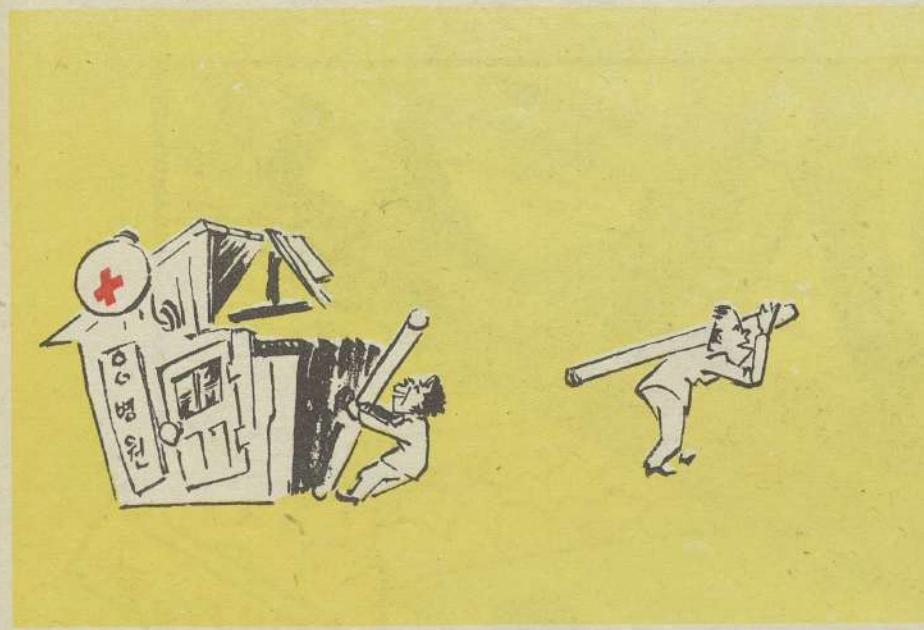
박 민수는 《자유당》에 입당하고 그 마을의 테로단장으로 취직하게 되였던 것이다.

명년도 《정, 부통령 선거》에서 반대파를 짓누르고 계속 패권을 독점하기 위한 리 승만의 《자유당원 배가 운동》은 지금 남조선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의 해방 후 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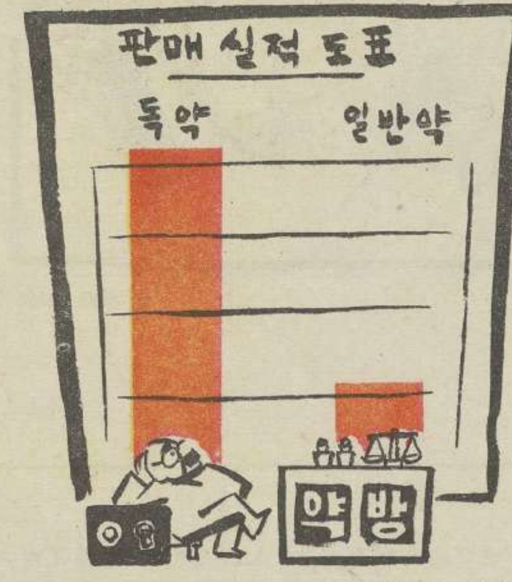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주는 것과 느는 것



조 명식 그림

남조선 백성에게 《봉사》하는 약방



최 영근 그림

뛰는 놈 우에 나는 놈 있다

리 춘수 그림

하느님이 병을 고친다

원 광수 그림

한 대학 교수의 운명

정 종균

서울 모 대학 현직 중인 김 교수는 《신인 가수 선발 콩클 대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창신동 ×× 극장(3류 극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비록 대학 교수이지만 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푼전의 《과외 수입》이라도 얻어 볼가 하고 가요곡의 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믿고 이 곳에 나왔다.

막이 열리였다.

둘째번으로 무대에 나와 저속한 류행가를 아코데온에 맞춰 부르는 초라한 사나이의 노래를 들었을 때 벌써 김 교수는 무대에 출현할 용기를 아예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김 교수는 서울 창신동 낙산 막바지에 옹기 종기 모인 《성냥갑집》 하나에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에서 얻어지는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자신을 비롯한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해야 했고 모든 생활비,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세금 등속을 내야 했다.

자식들은 매일 아침 《돈의 합창》을 불러 그와 그의 안해를 괴롭히며 울었다. 《아부지, 노―트값―》《엄마 학급비―》《엄마, 사친 회비》《아빠 나 심환만―》

아침마다 자식들의 돈 타령이 지나가면 다음은 괴뢰 세리들과 빚쟁이들이 밀려 들어 《세금 공세》와 《빚 공세》를 겪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이런 생활 속에서 쪼들려 가며 빚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그는 생활고에 그만 지칠대로 지쳐 앞길이 막막하였다. 《래일》에 기만 당하여 혹시나 생활이 좀 나아질가 하고 참아 보았지만 더 혹심한 《래일》만 계속될 뿐 김 교수의 가정에는 좀체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오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일본 경응 대학에 다닐 때 땐스를 배운 일이 있었다. 그것을 밑천으로 그는 밤 시간을 타서 알바이트 홀의 《땐스 교사》라도 해 보기로 했다.

알바이트《땐스 교사》를 부업으로 하는 대학 교수! 누가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손'가락질을 받을 것은 뻔하다. 허나 대학 교수라는 딱지만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김 교수는 때로 진정한 자신에 돌아 왔을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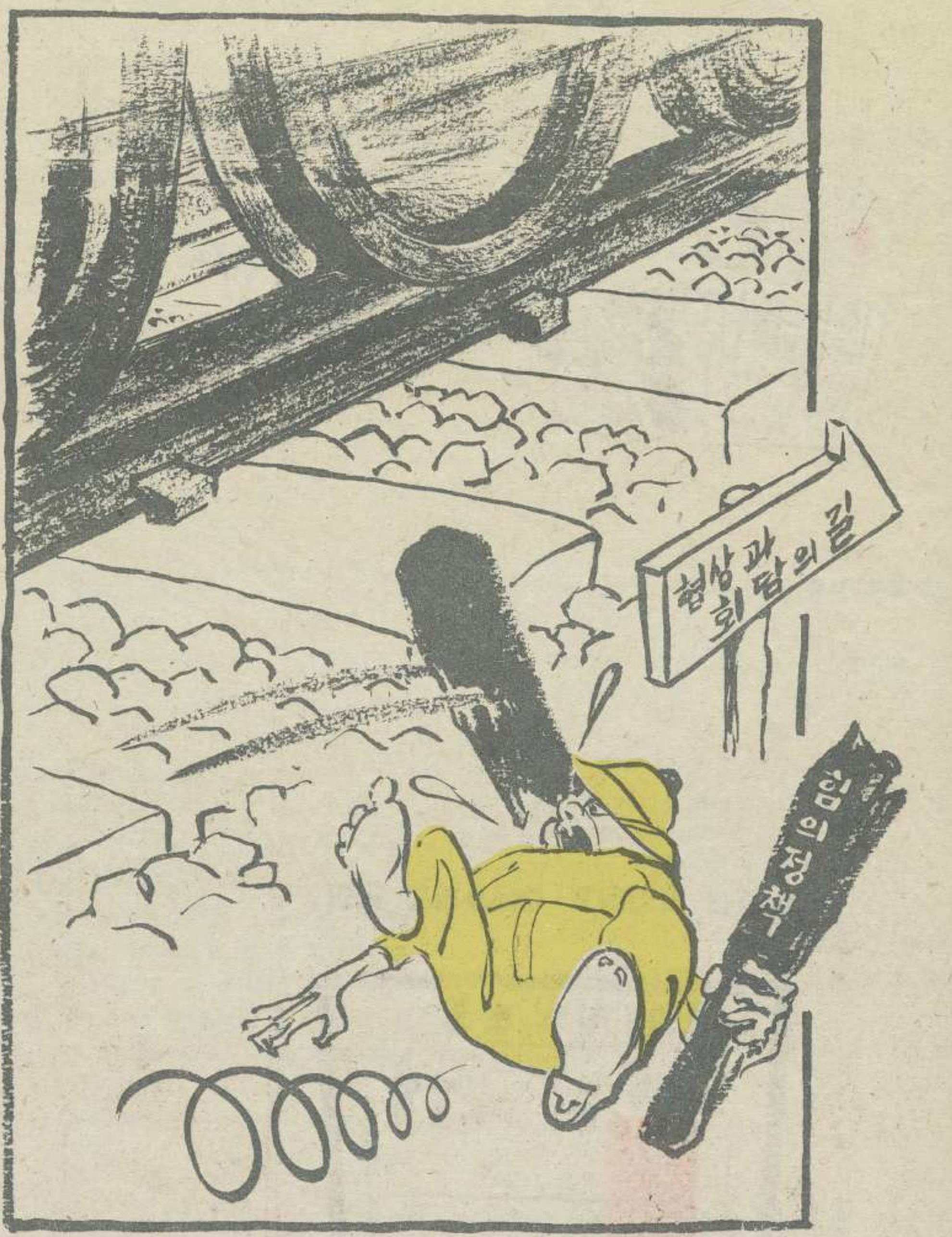
《래일부터 그건 그만 두자》 결심했다가도

《서너번만 더 나가고―》

하며 몇푼이라도 더 벌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아까의 결심을 꺾어 버린다.

그렇게 다만 돈이란 마력 때문에 학자라는 량심도 저버렸지만 그 노릇도 얼마 못가 하지 못하게 되였다.

우둔한 기도



홍 종호 그림

그 때부터 김 교수는 절망이 몸을 엄습해 왔다. 안해는 남몰래 목판에 담배갑이나 놓고 팔아 보았으나 그것도 신통치 못했다. 학년말이 다가 오자 김 교수의 눈 앞은 캄캄해졌다. 중학교에 진학할 놈이 하나, 《국민 학교》 입학할 놈이 하나, 거기에 따르는 돈!

매일 끼니'거리에 목매워 시달리는 데 입학금, 책값, 잡기장값, 수업료, 사친회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칠 말큼 무시무시한 공포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왔다.

김 교수는 안해와 장차는 고사하고 당장의 호구지책을 여러 가지로 의논해 보았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생길 리 만무했다. 되려 더 초조해지기만 했다.

기계처럼 학교에 나가도 머리가 멩 하여 아무런 여념도 생기지 않았으며 책을 드려다 보아도 머리 속에는 생활난의 역마만 달리고 있었다.

영화 배우가 수입이 괜찮다는 말을 들은 김 교수는 서로 담소를 할만 한 영화 감독을 찾아가 여러 이야기 끝에 《나도 한번 출연시켜 주시구료》 이렇게 롱 삼아 청을 넣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영화 배우들이 반드름히 옷을 차려 입고 울긋불긋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수입이 많은 줄 아신다면 잘못 보신거죠. 그건 직업이 돼서 그런거니까요. 하기는 좋은 파트롱을 얻어서 〈국회 의원〉이나 큰 상사 사장의 첩 살림을 든 녀배우는 별 문제지만…》

김 교수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힘없이 거리를 거닐면서 생각했다.

세계 인민들은 환영 한다

백 인균 그림

(내가 만일에 녀자이고 그리고 얼굴이 예쁘며 이름난 녀배우라면…그리고 자신의 정조를 한갓 상품으로 밖에는 생각지 않을 각오가 돼 있으며 그리고 또 돈 있고 권세 있는 놈이 걸려 들었다면…그 때엔 나의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지…

김 교수는 몸서리쳤다. 매춘부가 부러워진 대학 교수! 그리고 보면 지조도 체면도 다 버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푼전에 모든 것을 다 내맡기면서도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자신이 《서 종삼》의 매춘부들의 신세와 무엇이 다른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때려 눕히지 않고서는 그대로는 살아 나갈 수 없는 남조선이다.

또 하나의 타격

원 광수 그림

편집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712
발행 1959. 9. 11
(값40전)

남조선 류행어 만화 사전

8034
Хвальсаль

《사등 차》

《미국식 원조》

《무사 통과탕》

《상가의 부조금에서도 세금》

《세금 강도단》

백 인규 그림